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 육 심 리 전 공

정 선 현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정 선 현

정선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주 심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위 원 철학박사 이 희 영 (인)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애착 ····· 9
2. 갈등해결전략 ····· 14
3. 갈등해결전략과 애착 ····· 18

Ⅲ. 연구방법 ····· 25

1. 연구모형 ····· 25
2. 연구대상 ····· 26
3. 측정도구 ····· 26
4. 자료수집 및 절차 ····· 29
5. 자료분석방법 ····· 29

Ⅳ. 연구결과 해석 ····· 31

1. 예비분석 결과 ····· 31
2.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 33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 모애착,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서 미치는 영향에서의 아동의 성별의 중재·····35
4.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37
5.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의 아동의 성별의 중재·····39

Ⅴ. 논의 및 결론·····41

1. 논의·····43
2. 결론 및 제언·····46

참고문헌·····49
부록-설문지·····5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목차

<표1> 애착척도의 문항구성 신뢰도·····27

<표2> 갈등해결전략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28

<표3> 성별에 따른 모애착·또래애착의 기술통계량·····31

<표4>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기술통계량·····32

<표5> 모애착,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34

<표6>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단순회귀분석·····34

<표7> 남녀 아동별 모애착,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호상관·····36

<표8> 남녀 아동별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단순회귀분석·····36

<표9> 모애착, 또래애착의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38

<표10> 남녀 아동별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39

그림목차

<그림1> Rahim의 갈등해결척도 모델·····17
<그림2> 연구모형·····25

Abstract

Difference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y the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of Children

Jung, Sun Hyun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y the attachment of children. In order to obtain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how do mother and peer attachment of children had an effec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econd, taking sex, was there a difference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i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ird, of pe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how attachment do have more effected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Fourth, taking sex, of pe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how do have more effected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5 elementary school student(184 boys and 163 girls) in Pusan. Children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including Ok Jung`s(1998) 「Inventory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IPPA-R)」, Bae`s(2000)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The data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 and peer attachment of children had an effec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ignificantly and they had most effect on compromising and cooperating.

Second, taking sex,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i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ird, peer attachment had more effected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an mother attachment.

Fourth,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worked to boys i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ut girls be worked to only peer attachment i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nderstand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further to help children suffering from school maladjustment and school viole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가정을 벗어나서는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와 사회적 관계를 수직적으로 형성하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접하게 된다.

아동은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 시작하며, 특히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동년배와 상호작용이 늘어감에 따라,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양도 늘어나며(Brown, 1990)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표본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윤진, 1984).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아동의 또래관계는 유아기의 그것과는 그 중요성이 달라진다.

Sullivan(1953)은 친구관계 경험이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친구관계가 친밀감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아동은 이러한 실패로 인해 이후의 발달적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는데 문제를 겪게 되고 이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Campbell & Cluss, 1983). 이러한 아동은 또래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다시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방해를 받는 악순

환이 거듭된다는 점에서 어린 시기의 또래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기에 발달해야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성별, 양육방식, 애착, 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등의 요인들과 또래관계형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 중 최근 연구자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은 친구간 갈등이다.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적대적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며, 학령기 아동은 또래 관계를 통해 많은 갈등 경험을 한다. 학교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지내게 되면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아동은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게 된다.

최근에 과중한 학원교육이나 맞벌이에 의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놀이를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줄어드는 반면,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 등 혼자 하는 놀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아동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교류의 충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어진다.

학교 폭력의 발생현황을 보면 또래에서 29.7%로 가장 많이 일어나며 가해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내 기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와 '친구들이 시키거나 어울리려고'인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영복, 2009). 이는 학생들은 또래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의 한 단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적절한 사회화의 연습을 충분히 접하지 못하여 부작용이 야기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화의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덧붙여 아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행동 특성도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인 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문제해결 기술이 낮고 갈등 상황에 직면하면 다른

아동에 비해 보복을 사용하는 수준이 높으며 상황에 따른 행동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시형, 2000). 즉,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또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은 개인적 부적응 문제에서만 그칠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갈등해결전략이란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나리, 2002). Alexander(2000)는 갈등해결을 상호간의 불일치를 성공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갈등해결은 개인에 따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래관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발달과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갈등은 항상 공격적이지 않으며 개인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며(Laursen, Hartup & Koplas, 1996), Caplan(1974)는 사회적 갈등이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며 개인을 변화, 적응,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송은미, 2003, 재인용). 특히, 갈등은 아동 및 청소년이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종결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Collins, Laursen과 Mortensen(1997)의 연구는 갈등해결이 아동 및 청소년 친구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갈등이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고 원만한 갈등해결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익히는 것은 아동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또래 갈등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가치 있는 과정(김송이, 2001)이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선택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또래지위(Gottman, 1983)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과 친구관계, 자녀관계, 애착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임연진, 1999)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 중의 하나가 애착이다.

애착이란 개인이 생의 초기에 자신이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또한 최근에 학자들은 전 생애적 관점에 따라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개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서,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형성과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장휘숙, 1997a; Armsden & Greenberg, 1987). 그리고 애착체계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이후 발달단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69). 안정애착유아는 발달적 단계를 적응적으로 해 나간 반면, 불안정애착 유아는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과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스트레스와 갈등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대처한다고 보고하였다(Kern & Steven, 1996). 부모와 아동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도 도움을 주며(노명희, 1995)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의 연구들은 영아기 애착의 질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6세 아는 놀이시 능력이 더 있고 또래에게 더 잘 수용되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했다(Verschueren & Marcoen, 1999). 그리고 부, 모, 또래의 애착안정성에 따라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손현숙, 2008). 부애착 안정성이 낮은 아동의 경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등으로 인해 교우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또래애착성이 낮은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아동은 교우관계문제를 경험한다. 아동이 또래와의 애착에서 안정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자아개념 발달과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주며(Bukowski & Hoza, 1989) 또래관계는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이가 든 아동들이 기술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이러한 사실이 친구관계에서 친밀감과 안정성을 더 크게 한다(Buhrmester & Furman, 1987). 아동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회피전략의 사용은 또래 애착에서 신뢰감과 의사소통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안정된 애착은 갈등해결전략에 긍정적인 전략을 선택하는데 높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황주혜, 2006). 이 연구들에 기초해서 볼 때 애착은 개인이 대인간에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덧붙여, 이정희(2007)의 연구를 보면 친구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도움, 친밀감을 더 느끼고 양보전략 및 회피전략에서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어서 지배전략도 마찬가지로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은채, 2005). 성인의 경우에도 성차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불안애착유형일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관계유지에 보다 많은 책임을 느끼는 여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다 많이 하였다(Levinso & Gottman, 1985; Locke, 1951).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볼 때 갈등해결전략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연구 결과는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고 남녀간에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와 성별에 대한 차이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청소년과 성인에 집중되어 있고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없다. 덧붙여 현대에 이르러 아동의 성숙이 일찍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또래관계와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범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고학년 아동기의 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모 애착과 또래 애착 중에서 성별의 차에 의한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의 차이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와 또래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상담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또래 애착과 모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러한 노력은 그 수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연구대상이 부모애착을 함께 보거나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다. 주 양육자인 모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래애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 애착과 모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애착에 따라 남녀차이가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남녀 아동의 성의 중재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

연구문제 3.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갈등해결전략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해결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의 갈등해결전략은 조직체 내에서 대인간계의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는 척도(Rahim, 1983)를 배선영(2000)이 아동에게 맞게 수정·구분한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양보전략, 지배전략을 말한다.

나. 모 애착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Bowlby, 1982), 모애착이란 아동이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정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척도(신뢰, 의사소통, 소외차원)에서 얻은 점수를 통해 모애착 수준을 측정한다.

다.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애착이란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감정의 교류, 또래 집단에의 적응에 있어 안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애착을 또래와의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감을 하위 요소로 얻은 점수를 통해 애착 수준을 측정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애착

가. 애착의 개념

애착이란 개인이 생의 초기에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Bowlby, 1982).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생의 초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생애적 관점에 따라 평생을 통해 유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애착의 계속성은 Bowlby(1973)가 제안한 내적 작동 모델에 기초하는데, 내적 작동모델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아동은 초기 양육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에 따라 자신과 양육자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의 특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며 사건을 지각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계획을 구성해 나가게 된다. 생후 몇 개월이 지나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내적작동모델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되어 애착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며, 이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b). 안정된 애착관계는 양육자가 일관되고 민감한 반응으로 영아기에 기본적인 신뢰감을 심어줄 때 형성된다.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영아는 환경탐색을 위한 안전기지로서 애착인물을 이용하여 환경 탐색을 하는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애착인물에게 매달린다. 일단

위험에서 벗어나면 다시 탐색에 나서는데 그것은 애착인물이 안전한 안식처로서 거기에 있어줄 거라는 확신 때문이다(Marrone, 1998).

애착은 이론가에 따라 다양한 형성과정으로 설명된다. 정신분석이론가들은 성적충동을 만족시켜 주고 배고픔을 달래주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영아에게 편안한 젖을 먹여주고 만족감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영아의 수유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이 영아기의 안정된 애착관계와 기본신뢰감 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Franz & White, 1985). 영아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주는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고, 이런 느낌이 일반화 되어 자기와 외부세계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된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빨기(Sucking)가 애착발달에 중요하다고 본다. 어머니는 영아에게 배고픔 해소 등의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영아는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어머니는 2차적인 강화의 지위를 획득하여, 아이는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게 되고 어머니와 접촉을 통해 애착을 발달시킨다.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애착을 형성하는 영아의 능력이 전반적인 인지발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애착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적 변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즉, 유아의 애착행동은 어머니와 유아의 기본사고 구조 및 과정이 발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행동학적 이론에서는 유아의 생존에 애착인물이 기여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결정된 기제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았고, 학습이론가들은 애착행동도 학습경험의 축적된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고 제시하였다(Perry & Bussey, 1984; 김민정, 1990).

나. 애착이론 및 부모애착

Ainsworth와 Bell(1970)은 애착이란 사람이 자신과 특정한 개인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 지속된다고 하였다.

Ainsworth와 동료들(1972)은 애착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낯선 상황 검사를 통하여 유아가 어머니와 분리되고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로 유아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애착의 범주를 안정, 불안-회피, 불안-저항으로 나누었다. 안정된 애착유아는 어머니와 분리되면 당황하지만 어머니가 되돌아오면 반가워하면 안긴다. 또한 어머니가 곁에 있는 한 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사교적이다. 불안-회피 유아는 어머니와 분리되는 것에 별 동요가 없고 엄마가 돌아와도 외면하거나 피한다. 불안-저항 애착유아는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화를 내지만 회피유형과는 달리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Ainsworth(1972)로부터 시작된 애착유형분류는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개인의 애착을 분류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애착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기초가 되고 있다.

내적작동모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계획하는 기초가 되므로 내적작동모델은 기대, 지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사건을 이해하며 이에 반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용되면서 전 생애에 걸쳐 유동적이지만 일관된 애착 유형의 연속성 기제를 제공한다(Bowlby, 1982). 즉, 영아기에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긍정적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성장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

하고 타인과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어 성인기 관계형성 및 행동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아기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맺은 안정애착은 아동기에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또래와 교사관계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안정애착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문제해결력이 우수하며 갈등에 직면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인지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희, 1990).

청소년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됨을 알 수 있다(유윤희, 1994).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부모 이후의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적게 느끼게 하므로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여 친구간 갈등의 소지가 적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 경우에, 청소년은 친구 관계에 있어 덜 조화롭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반항적인 기질과 공격성이 높거나 독단적인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상황에서 안정애착에 비해 광범위한 불안이 나타낸다고 하였다(Ericker & Sroufe, 1992).

성인기 애착연구들은 애착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차이는 있었으나, 유아기에 어머니와 형성된 개인의 애착 양식과 성인기 애착상태의 일관된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생애초기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영아기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또래애착

또래란 단순히 연령이 같고 행동이 유사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아동들을 말한다. 또래 집단은 연령, 신분, 흥미, 성이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집단으로 '우리'라는 정서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고 또래만의 규칙과 조직이 있다. 아동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래사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부모 형제와는 다른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걸음마기 이후에는 성인과의 상호작용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즉, 또래관계는 같은 연령이나 일정한 지역, 범위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에 애정과 호감을 가지고 친밀한 애착을 형성하는 자발적인 상호작용관계라고 할 수 있다(이은채, 2005).

초기 애착연구에서는 영아와 양육자간의 애정적 유대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는 애착을 개인의 전 생애를 동안 양육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형성하는 유대관계로 인식된다(장휘숙, 1998). 아동기에 수립된 애착은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Hazan & Shaver, 1990) 친구관계와 같은 긴밀한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Bukowski와 Hoza(1989)는 아동이 또래와의 애착에서 안정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아개념의 발달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모애착과 또래 애착은 사회생활에 있어 전 생애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두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해보고자 한다.

2. 갈등해결전략

가. 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상대방이 좌절시켰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Thomas, 1976)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은 불가피하게 생겨나고 두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해야할 때 발생하고 양방간의 교류에서 일방의 활동이 상대방의 활동과 조화되지 않거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이 불리하게 여겨질 때 발생하며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한다(Deutsch, 1973).

갈등은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인지적(지각), 감정적(느낌), 행동적(표출) 차원에서 발생한다(Mayer, 2000). 인지에 따른 갈등은 생각하는 과정으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관심, 가치 등이 상대방과 서로 모순되었을 때 발생하며, 감정에 따른 갈등은 갈등을 느끼는 과정으로, 어떤 상태에 대한 감정적 반작용이나 어떤 종류의 불일치를 표현하고 그에 따른 상호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행동에 따른 갈등은 갈등이 직접 표출되는 과정으로, 인지되거나 느껴지는 갈등상태를 실제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황주혜, 2006, 재인용).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Canary, Cupach, & Messman,

1995). 갈등은 자신의 관심, 동기, 주장, 태도, 가치, 욕구 등이 상대와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물질적, 정서적 대립상태(김지현, 2002)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개인의 욕구와 목표달성을 위한 선택의 순간(이은채, 2005)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는데 (Laurensen, Hartup, Koplas, 1996) 사회적 갈등은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며 개인을 변화, 적응,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이란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나리, 2002). 갈등해결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갈등의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 하는 전략(이수원・박광엽, 1992)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갈등해결전략의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Deutsch(1949)와 Tjosvold(1990)는 불일치를 경감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협력'과 불일치를 부추기는 파괴적인 과정을 '경쟁'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Blake와 Mouton(1964)은 개인 간 갈등해결유형을 강압, 문제해결, 완화, 회피, 타협의 5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김지현, 2002, 재인용). 강압은 경쟁과 힘의 연관관계로 타인의 요구를 적게 반영하고 자신의 요구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문제해결은 협력과 조정의 과정으로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가능한 해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완화는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기 위한 순응행동이며 회피는 신체적, 심리적이 철회 상태로써 갈등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협은 각 당사자의 기본 요구를 수용하는 간단한 해결이다.

Pruitt(1983)은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전략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등 상황으로부터 철회하기'이며, 두 번째는 '양보하기'이다. 세 번째는 '상호간 수용이 가능하거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치점 찾기' 이며, 네 번째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이다. Johnson과 Mitchell(1996)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 상황에 개입한다고 하였다(정선영, 2001, 재인용).

Thomas(1983)는 갈등해결을 위한 유형을 강행(지배, 경쟁), 순응(비직면), 회피, 타협, 협력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강행'은 상대방에게 강압적이고 경쟁적이며 갈등에서 이기거나 최대한 이익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 유형은 자신의 갈등해결에 충실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권리나 욕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고, 관계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 '순응'은 상대방의 결정에 조화를 따르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지만 자기 자신의 욕구와 관심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므로 내적 불만이 생기기 쉽고, 자기패배감이 높아져서 자신의 내적, 정서적 갈등의 정도를 확대,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회피'는 특정한 문제에 대화를 거부하거나 다른 문제에까지 대화거부를 확대하고, 상대방의 메시지에 낮은 반응 수준을 보이며 문제 자체에 접근을 회피하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이다. '타협'은 상대방이 주장을 인식하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루는데 관심이 있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관심이 있다. '협력'은 갈등을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양측 모두가 적절하고 만족하는 해결방법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므

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협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Rahim(1983)은 2차원 도식을 근거로 조직체 내에서 친구관계 갈등해결 전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갈등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 양보 지배, 회피, 절충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아래와 같다.(배선영, 2000, 재인용)

<그림 1> Rahim의 갈등해결척도 모델

협력형은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유형이며, 양보형은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지배형은 자신의 관심사를 먼저 충족하려고 하고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회피형은 갈등을 피하는 방식으로 갈등 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 충족에도 관심이 낮다. 절충형은 서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얻을 것을 얻고 포기할 것을 포기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인 만족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분한 Rahim의 갈등해결척도가 형식화된 사회적 조직 상황 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친구관계 등의 비형식화된 관계에서는 '절충'과 '협력'의 구분이 적게 나타난다(Hommock, Richardson, Pilkington & Utley, 1990). 그러므로 또래관계도 마찬가지로 갈등해결전략을 절충 및 협력, 회피, 지배, 양보의 4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Selman(1980)의 모델에 따르면, 아동은 성숙해 짐에 따라 점차 또래관계에서 협상과 상호 호혜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며, 다양한 수준의 전략과 더 진보된 협상 수준을 사용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김송이, 2001, 재인용).

갈등해결전략은 자신과 상대방의 서로 관심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각자의 갈등해결전략을 가지게 되고, 각자의 갈등해결전략은 아동의 성장 발달과 성숙한 사회적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갈등해결전략과 애착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적대적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며, 학령기 아동은 또래 관계를 통해 많은 갈등을 경험을 한다.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라면, 관계라는 것이 성립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갈등은 빚어지게 마련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가지며 대인관계 속

에서 다른 욕구들은 갈등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만한 관계의 유지를 위하며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성 발달에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개인이 선택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대인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애착을 꼽는다(김나리, 2002).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이 사회인지는 다시 공격성에 강한 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유윤희, 1994). 그리고 아동이 어머니와 신뢰감이 높으면 친구간 갈등해결시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이정희, 2007)하며 어머니와 소외감을 느끼는 아동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시 상호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회피로 극복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이 형성 청소년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덜 조화롭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Ericker & Scoufe, 1992).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된 아동 및 청소년일수록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어머니와 신뢰롭게 애착을 형성하면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친구도 좋고 나도 좋은 절충 및 협력전략을 통해 대인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안정애착아동들은 불안정애착아동들에 비해 또래들과 사교적이고 또래활동에 협력적으로 임한다.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이 뛰어나며 심리적 안정감

을 느끼고(Clarke, Stewart & Friedman, 1987) 긍정적인 자아를 인지하게 되며 자기 수용이 뛰어나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아동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높다(Cassidy, 1999).

초등학교 교실 맥락에서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가진 아동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아동들은 낯선 또래나 어른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 뛰어남에 비해 불안정 애착아동은 여러 종류의 행동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이며, 분노나 폭발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김일주, 2009)고 하였다..

안정된 애착은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대처기술을 증진시킨다고 언급한 Bowlby(1982)에 이어 Torquati와 Vazsonyi(1999)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위협의 인식, 정서, 평가, 문제해결능력도 우수하며, 갈등에 직면하여 적절한 대처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으며, 또래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덜 방해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것이다.

성인애착에 있어서 애착관계를 생애발달적 측면에서 고려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인기 애착관계 유형이 유아기 때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Hazan & Shaver, 1987). 사람들은 애착안정성에 따라 특정한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애착의 특징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김나리, 2002). 따라서 유아기에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고(Hammenetal., 1995; Milkulinceretal., 1993), 갈등해결방식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애착체계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이후 발달단계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활성화 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eeney, 1999).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경들이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위협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성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보면, 애착 회피와 불안 모두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해결과정에서 안정애착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갈등해결전략의 부정성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이루게 됨을 나타낸다(김예나, 2008).

선행연구들을 볼 때, 생애초기에 형성된 첫 대인관계인 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그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선택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불안정 애착아들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으나 갈등 발생시 선택하는 갈등해결전략은 부정적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기의 애착형성은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래 지위에 관한 연구(김표선, 2004)에서 인기아는 우호성, 순종, 동조성, 적응성, 성취욕구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또래의 인정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성숙한 행동을 보이며, 인기없는 아동보다 더 다정하고 더 사교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능숙했으며 더 친절하고 협동적이라고 하였다. 반면, 거부아는 위축, 반항, 공격성, 성인의존성 등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어 남을 괴롭히거나 싸우며, 논쟁을 시작하거나, 혹은 그 표적이 되어 미성숙하고 반사회적이거나 파괴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등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애착에서 조절과 절충을 적게 사용하고 자기 주장이 많을수록 친구간 갈등이 많아지며(Rose & Asher, 1999), 친구간 갈등은 지배전략 사용과 정적상관이 있다(배선영, 2000).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애착 연구에서는 또래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Cottman, 1983), Selman(1980)의 연구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동이 부적절한 해결 전략을 사용하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의 상·하 수준별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에 대하여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형은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공격형과 회피형은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이은채, 2005). 부모애착은 협력형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공격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회피형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래애착은 협력형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공격형 및 회피형과는 부적상관을 이루었다.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전략을 사용하고, 부모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전략을 사용하며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협력전략을 사용하고,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공격전략과 회피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더불어 갈등해결전략에는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은 부모애착보다 또래애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황주혜, 2006).

중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에서는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아동은 보고한 교우관계문제 점수가 낮았고 교우관계문제영역 중에서 부애착 안정성 수준 및 또래애착 안정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동은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등의 영역에서 교우관계문제 점수가 공통적으로 높았다(손현숙, 2008). 즉, 또래애착도 모애착과 마찬가지로 교우관계 및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Miller, Danaher와 Forbes(1986)는 5세에서 7세 유아의 실제 놀이 상황을 관찰한 연구를 통해 또래간 갈등 상황에서 여아는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아는 위협이나 힘을 사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동기의 갈등해결략은 양보전략은 여아가 더 활용하고 지배전략은 남아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이정희, 2007) 청소년기에서도 갈등해결전략 중 여학생은 협력형 점수가 더 높고 공격형 점수는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나(황주혜, 2006) 아동 및 청소년기에서도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은 남녀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인애착을 대상으로 한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남녀 차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적 감정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외부도움요청과 회피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갈등을 완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남성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는 성인 및 유아에서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김미나, 2008).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영향도 점점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성장하면 각각의 성차에 의한 차이도 그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같이 생각해 볼 때 모 애착과 또래 애착 모두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됨을 짐작할 수 있고 성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서는 모애착과 또래애착 중 어느 것이 더 상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연구의 사

례가 드물며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의 수도 제한적이다. 아동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살펴볼 때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를 완화해주는 요소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을 찾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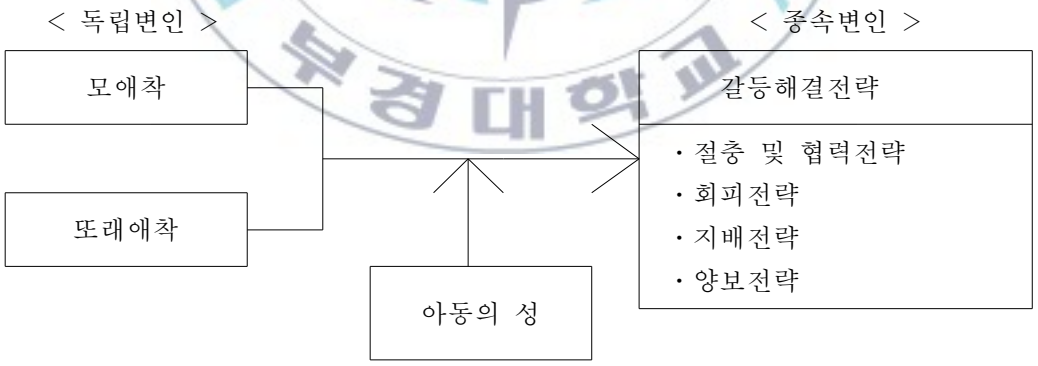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모애착)과 또래에 대한 애착(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각각의 독립적인 영향의 정도 및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연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학년을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아동 중기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결과(Hartup, et al., 1993) 및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중학생의 또래 관계보다는 친밀한 친구가 주요한 관계라는 연구결과(김경희, 1986)에 기초하였다. 더불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의 또래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서 학년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한혜원(2003)의 연구결과에 토대를 두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5학년 15학급을 대상으로 48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43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및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응답자료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347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남아가 184명(53.0%), 여아가 163명(47.0%)이었다.

3. 측정도구

독립변인(모애착, 또래애착) 및 종속변인(갈등해결전략) 측정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척도를 선정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1990)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수정판(IPPA-R, 원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이 1987년에 개발)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25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척도로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애착 문항을 각각 따로 사용하였다. 원래의 부모 · 또래 애착 척도는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9문항), 소외감(6문항)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위척도로 구분하지 않고 애착 전체점수로만 측정하였다. 문항 형식은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하게 되어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옥정, 1998)에서는 모애착 척도의 경우 Cronbach α=.92, 또래애착 척도의 경우 α=.92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척도의 경우 2개 문항(8번, 14번 문항)이, 그리고 또래애착 척도의 경우 1개의 문항(9번 문항)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문항을 제거하여 모애착 척도의 경우 23개문항, 또래애착 척도의 경우 24개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수와 역채점 문항번호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애착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척도명	문항수	역채점 문항번호	제외문항	Cronbach α
모애착	23	6, 10, 11, 14, 18, 23	8, 14	.91
또래애착	24	4, 5, 10, 11, 18, 22, 23	9	.92

나. 갈등해결전략 척도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해와 동료들(2000)이 제작하고 배선영(2000)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적절하도록 문항내용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 충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지배의 하위요소로 나누어진다. 절충 및 협력전략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자신과 친구양쪽을 모두 상호 수용하거나 인정하고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회피전략은 자신과 친구 모두의 욕구 충족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이다. 반면 양보전략은 갈등해결전략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 친구와 욕구 충족을 고려하는 것이고 지배전략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 친구의 욕구 충족에는 관심이 적은 것을 말한다. 4가지 전략에 따라 각 4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전략을 측정하는 1개 문항(13번 문항)이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하여 전체 15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수와 문항번호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갈등해결전략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절충 및 협력전략	4	1, 5, 10, 14	.76
회피전략	4	2, 6, 9	.66
양보전략	4	4, 8, 12, 16	.65
지배전략	4	3, 7, 11, 15	.60

4. 자료수집 절차

실제조사를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검사 소요시간, 아동의 문항이해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 5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를 수정하여 예비조사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각 학교 검사자에 해당하는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담임교사의 주도하에 수업시간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학생에게 설명하였다. 응답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 아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모애착, 또래애착, 갈등해결전략 척도 점수)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WIN(ver. 18.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애착과 또래애착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갈등해결전략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남녀 아동간의 평균차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점수분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둘째,「연구문제 1. '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 점수와 갈등해결전략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는 한편, 모애착, 또래애착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연구문제 2.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모애착과 또래애착과의 상관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연구문제 3.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또래애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각 하위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연구문제 4.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 여 각각 구분된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모애착, 또래애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산출된 통계량은 α=.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해석

1. 예비분석 결과: 독립 및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애착과 또래애착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갈등해결전략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함으로써 점수분포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또래애착(독립변인)이 갈등해결전략(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의 중재영향에도 관심을 가졌으므로 남녀 아동간의 평균점수에서의 차이검증 또한 함께 실시하였다.

먼저 <표 3>은 남녀 아동의 모애착 및 또래애착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평균차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성별에 따른 모애착·또래애착의 기술통계량

	구분	남아 (N=184)		여아 (N=16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애착	모애착	75.64	9.26	76.07	11.99	.37
	또래애착	67.37	12.73	72.02	14.04	3.24**

**$p<.01$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애착 점수에서 남아는 M=75.64, 여아는 M=76.07을 나타내었다. 이는 모애착 척도가 갖는 점수 범위(23~92점)

및 절대평균(M=57.5)에 비추어 남녀 아동 모두는 평균적으로 모와 비교적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남녀 아동간에 모애착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37, p>.05).

또래애착 평균점수에서는 남아의 경우 M=67.37, 여아의 경우 M=72.02를 나타내어 척도점수의 범위(24~96점) 및 절대평균(M=60.0)에 비추어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남아와 여아 간에는 평균점수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t=3.24, p<.001) 이는 남아에 비하여 여아들이 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표 4>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별 기술통계량 및 남녀 아동간 평균차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남아 (N=184)		여아 (N=16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갈등해결 전략	절충 및 협력전략	2.86	.64	3.14	.58	4.13***
	회피전략	2.96	.69	3.15	.59	2.76**
	지배전략	2.40	.60	2.36	.58	.64
	양보전략	2.62	.58	2.76	.59	2.32*

*p<.05 **p<.01 ***p<.001

<표 4>에 제시된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우선 갈등해결전략 점수의 범위(1~4점) 및 절대평균(M=2.5)에 비추어 경향을 살펴보면, 비록 남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절충 및 협력전략과 회피전략은 평균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지배전략은 양보전략은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남녀 아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아의 경우 회피전략(M=2.96) - 절충 및 협력전략(M=2.86) - 양보전략(M=2.62) - 지배전략(M=2.40)의 순서로 점수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간에는 .56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여아의 경우 회피전략(M=3.15) - 절충 및 협력전략(M=3.14) - 양보전략(M=2.76) - 지배전략(M=2.36)의 순서를 나타내어 점수 순위에서는 남아와 동일하였으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간에는 .61점의 차이를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차 검증결과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t=4.13, p<.001)과 회피전략(t=2.76 p<.01), 양보전략(t=2.32, p<.05)에서는 여아들이 모두 남아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높은 평균점수 경향을 보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남녀 아동 간에는 또래애착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표 3>) 아니라 갈등해결전략 또한 차이(<표 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4에 따른 또래애착 혹은 복합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아동의 성이 어느 정도 중재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2.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 점수와 갈등해결전략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는 한편, 모애착,

또래애착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적률상관계수를, 그리고 <표 6>은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모애착,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
전체	모애착	.35***	.27***	.10	.13*
	또래애착	.65***	.32***	.01	.24***

*p<.05 **p<.01 ***p<.001

<표 6>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R	R^2	F
모애착	절충 및 협력전략	.021	.354	.35	.125	49.46***
	회피전략	.016	.265	.27	.070	26.14***
	양보전략	.007	.130	.13	.017	5.93*
또래애착	절충 및 협력전략	.030	.652	.65	.425	254.93***
	회피전략	.015	.318	.31	.101	38.69***
	지배 전략	.004	.101	.10	.01	3.54
	양보전략	.011	.244	.24	.060	21.92***

*p<.05 ***p<.001

<표 5>를 살펴보면 모애착의 경우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따라 r=.10～.35 범위의 정적상관, 그리고 또래애착은 유형에 따라 r=.01～.65의 정적상관을 보임으로써 모애착, 또래애착 모두가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상관의 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 6>을 보면 모애착의 경우,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

12.5%의 영향을 미치며, 회피전략에는 7.0%의 영향을, 그리고 양보전략에는 1.7%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애착 여부는 무엇보다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 역시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절충 및 협력전략의 42.5%를 설명함으로써 회피전략(10.1%), 양보전략(6.0%)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월등하였다. 한편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는 아동의 지배전략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없음을 보여주었음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모애착 및 또래애착 모두는 대체로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되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모애착,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아동의 성별의 중재

「연구문제 2.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선 <표 5>의 모애착과 또래애착과의 상관 및 <표 6>의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남녀 아동별 모애착,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호상관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
남아	모애착	.35***	.37**	.06	.26***
	또래애착	.59***	.29***	.18*	.24***
여아	모애착	.38***	.17*	-.07	.02
	또래애착	.70***	.31***	.03	.22**

*p<.05 **p<.01 ***p<.001

<표 8> 남녀 아동별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집단	집단	종속변인	B	beta	R	R^2	F
남아	모애착	절충 및 협력전략	.025	.353	.35	.125	25.94***
		회피	.028	.370	.37	.137	28.82***
		양보	.016	.260	.26	.067	13.15***
	또래애착	절충 및 협력전략	.030	.589	.58	.347	96.58***
		회피	.016	.294	.29	.086	17.19***
		지배	.009	.184	.18	.034	6.40*
		양보	.011	.240	.24	.058	11.16*
여아	모애착	절충 및 협력전략	.018	.376	.37	.141	26.42***
		회피	.008	.170	.17	.029	4.81*
	또래애착	절충 및 협력전략	.029	.704	.70	.496	158.34***
		회피	.013	.313	.31	.098	17.49***
		양보	.009	.216	.21	.047	7.91**

*p<.05 **p<.01 ***p<.001

<표 7>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관계 정도는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모애착과 회피전략 간에는 r=.37의 상관을, 모애착과 양보전략 간에는 r=.26의 상

관을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 각각 r=.17, r=.0의 보다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비록 또래애착과 절충 및 협력전략이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아(r=.59)에 비하여, 여아(r=.70)에게서 보다 높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8>의 단순회귀분석결과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남아의 경우 모애착은 회피전략에 13.7%의 영향을, 양보전략에는 6.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 모애착은 회피전략에만 2.9% 정도의 영향만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에서는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이 절충 및 회피전략에 34.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 훨씬 더 높은 49.6% 정도의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남여아동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모애착이 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또래애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각 하위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9>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투입변인	B	beta	R	R^2	R^2변화	F변화량
절충	또래애착	.030	.642	.64	.413	.413	261.38***
회피	또래애착	.014	.293	.29	.086	.086	34.90***
	모애착	.008	.134	.32	.101	.015	6.14*
지배	또래애착	.004	.100	.10	.010	.010	3.75
양보	또래애착	.011	.238	.24	.056	.056	22.25***
	모애착	-.001	-.016	.24	.057	.052	.09

*p<.05 ***p<.001

우선 <표 9>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따라서 모애착 혹은 또래애착이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상당히 다르며, 갈등해결 유형에 따라 1%~43.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 유형별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절충 및 협력전략의 경우 또래애착이 41.3% 영향력을 보일뿐 모애착은 영향 변인으로 투입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피전략의 경우 또래애착이 8.6%, 모애착이 1.5%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배전략의 경우 모애착, 또래애착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지 못하였으며, 넷째 양보전략에는 또래애착이 5.6% 정도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의 아동의 성별의 중재

「연구문제 4.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 여 각각 구분된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모애착, 또래애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남녀 아동별 모애착,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집단	종속변인	투입변인	B	beta	R	R^2	R^2변화	F변화량
남아	절충 및 협력전략	또래애착	.030	.589	.59	.347	.347	96.58***
		모애착	.013	.181	.61	.376	.029	8.46**
	회피전략	모애착	.028	.370	.37	.137	.137	28.82***
		또래애착	.011	.194	.41	.170	.034	7.34**
	지배전략	또래애착	.009	.184	.18	.034	.034	6.40*
	양보전략	또래애착	.011	.240	.24	.058	.058	11.16**
		모애착	.013	1.16	.37	.134	.077	7.97***
여아	절충전략	또래애착	.029	.704	.70	.496	.496	158.34***
	회피전략	또래애착	.013	.313	.31	.098	.098	17.49***
	양보전략	또래애착	.009	.216	.22	.047	.047	7.92**
		모애착	-.006	-.118	.24	.057	.011	1.79

*p<.05 **p<.01 ***p<.001

<표 10>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와 여아에 따라 모애착, 또래애착 변인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상이하며, 또 갈등해

결전략유형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 양보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애착 변인으로 동일하였으나,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34.7%의 영향력을 보인 반면,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이 49.6%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의 경우 절충 및 협력전략의 채택에는 그 무엇보다도 또래간의 애착이 아주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회피전략의 경우 또한 모애착 혹은 또래 애착 영향력의 남녀 아동간 차이를 보여주는데, 남아의 경우 회피전략에 모애착이 13.7%의 영향력과 또래애착은 3.4%의 추가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 변인만이 9.8%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이 3.4%로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에게는 어떠한 애착변인도 지배전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전략의 경우에는 대체로 남녀 아동간 또래애착의 영향력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음(남아 5.8%, 여아 4.7%)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의 경우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취하던지 간에 모애착 보다는 또래애착이 보다 큰 1차적 영향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남아의 경우 갈등해결전략 하위유형에 따라 또래의 영향력과 더불어 모애착의 영향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여아의 경우 모든 갈등해결전략에서 또래애착의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며 특히 여아들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는 또래애착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추론적 해석은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모애착 및 또래애착에 따라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이들 두 애착형태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한편, 남녀간에 따라서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애착은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되 아동의 절충 및 해결전략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모애착은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양보전략의 순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절충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갈등해결전략이 협력적이라는 황주혜(2006)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모애착으로 한정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애착의 경우도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처럼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과 일치한다.

둘째, 또래애착에 대한 분석결과도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해결방식의 절충 및 협력전략-회피전략-양보전략의 순으로 모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황주혜(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장휘숙(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착과 대처방식에서 또래애착이 적극적 및 소극적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는 연구는 또래애착이 갈등해결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모애착과 또래애착은 갈등해결전략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형성은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모애착,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서 미치는 영향에서의 아동 성별의 중재

<연구문제 2>에 따라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첫째, 모애착은 남녀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모애착은 남아의 경우 회피전략, 양보전략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는 모애착과 회피전략, 양보전략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남아에 비해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전략 연구에서 남학생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천태복, 2005)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갈등해결전략 사용시 절충 및 협력전략-회피전략-지배전략-양보전력의 순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한 김지현(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관계서 도피요인을 많이 사용한다는 홍문표(1996)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이는 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남아가 회피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은, 남아의 특성상 여아에 비해 정

서표현을 억제하며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로 친구관계를 극복하여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자 관계에 방해가 되는 분노나 적대감정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걸로 보여 진다. 그러나, 그러나 모애착과 관련하여 회피 전략의 영향력은 연구의 수가 한정적이며 아동의 대상으로 한 경우도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애착과 모애착이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모애착과 더불어 또래애착도 남녀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남아에 비해 여아의 절충 및 협력전략 사용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이은채, 2005; 황주혜, 2006).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관계지향적이고 정서의 표현이 많고 공감적 표현을 많이 하므로 또래애착이 높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로 서로의 정서를 알려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성차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이 남아와 여아의 전략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애착과 또래애착으로 인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자의 성별의 특성상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Blyth, Hill, & Thiel, 1982).

다.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에 따라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있어 또래애착만이 높은 영향력을 보

였다. 이는 부, 모, 또래애착이 교우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또래애착과 교우관계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수하(2005)의 연구와 일치하며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하므로 또래애착은 협력형과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황주혜(2006)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청소년기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갈등에 직면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고 우수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Torquati와 Vazsonyi(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부적응의 위험은 낮아지고 또래의 지원이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한미현, 유안진, 1996; Parker & Asher, 1993). 또한 갈등을 직면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문제의 결과를 살펴볼 때 모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다면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 원만한 학교생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라.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의 아동의 성별의 중재

<연구문제 4>에 따라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하위유형에 따라 또래의 영향력과 더불어 모애착의 영향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여아의 경우 모든 갈등해결전략에서 또래애착의 영향이 절

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에도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에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양보전략에 모애착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양보전략의 사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만 높고 유일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또래애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애착수준을 가지기 때문이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선행연구(김민동, 2003; 도현심, 1999; 옥정, 2005; Arnsden & Greenberg, 1987)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여아가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높은 이유는 남아에 비해 신뢰감과 의사소통의 질이 높기 때문이며(김미란, 최정미, 2003; 이호선, 2001; 홍옥균, 2002),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밀하고 우의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이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여학생을 위한 또래애착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학교에서 또래의 역할로 인해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도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역할이 갈등해결전략에 영향력이 있고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또래애착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되고 이는 초기에 형성된 모애착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환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갈등상황에서 보다 상대방이 욕구와 목표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하려는 경향으로 볼 때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변할수록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황주혜(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은 성장을 하고 새로운 장에서 또래관계를 맺게 되면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초기애착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를 보완할 또래애착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학교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건강한 학교생활로 이끌게 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립변인을 모애착과 또래애착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의 네 유형을 종속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의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 또 성별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

연구문제 3.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

이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시에 소재한 4개 학교의 초등학교 5학년 남·여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347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IPPA-R)와 갈등해결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애착 또래애착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 및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애착 및 또래애착 모두는 대체로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되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남여 아동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모애착이 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넷째, 남아의 경우 갈등해결전략 하위유형에 따라 또래애착의 영향력과 더불어 모애착의 영향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여아의 경우 모든 갈등해결전략에서 또래애착의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며 특히 여아들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는 또래애착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5학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 또래애착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현대사회의 부모역할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끼치는 영향력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부모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과 모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연구의 대상폭을 넓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요인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남여별로 구분하여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남녀의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남녀 차이를 구별할 수는 있으나, 영향력의 크기까지 비교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성별*모애착 및 성별*또래애착의 효과를 비교하여 영향력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갈등문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학교문제는 대부분 또래관계에서 갈등상황에서 비롯된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이 원만한 또래관계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아동의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긍정적 관점의 갈등해결전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고윤주, 이은해 (2000). 대학생의 친구관계에서 친구의 지원과 갈등 해결방식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49-167.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김나리(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기분조절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1990). 유치원 유아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또래수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희(1989).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예나(2008).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사랑성향과 이성교제시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희(1993). 어머니-자녀의 의사 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일주(2009). 초등학교 교실 맥락에서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동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숙(1984).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표선(2004).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옥철(2004). 초등학생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선영(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효심, 이희영 (2007).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열린교육학회지. Vol.15(2). 127-143.

손현숙(2008).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교우관계문제.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은미(2003).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갈등해결전략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혜종(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수준과 자아존중감

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 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이수원, 박광엽 (1992). 갈등관리훈련 프로그램. **대학생활연구** 10(5). 85-111.

이시형(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서울: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영복(2009).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1992).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채(2005).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연진(1999).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능력 사회적 행동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정희(2007). 부모애착과 친구관계의 질에 따른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1997a).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지: 인간발달연구, 4(1), 88-106

장휘숙(1997b). 청소년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학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323-341.

장휘숙(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선영(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태복(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영(2003). 인간의 사회·성격 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문표(1996). 고등학교 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의 갈등요인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주혜(2006). 청소년의 애착관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int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Alexander, K. L. (2000).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in work and family life: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Doctori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Bell, S. M., & Ainsworth, M. D. S.(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e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Blake. R. R & Mouton, J. S.(1964). *The managerial grid. Houston*, Texas: Gulf Publishing.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Loss.*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Brown, B, B. (1990). Peer group and culture.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71-19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hrmester, D and Furman, W.(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 &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Campbell, S. B., Cluss. P. (1983).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pp. 325-351). New York: Stringer-Verlag

Canary, D. J., Cupach, W. R.& Messmanl, S. J. (1995). R*elationships conflict: Conflict in parent-child, friendship, and romatic relationships.* London: Sage Publication.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Deutsch, M. (1973). A theory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uman Relations, 2,* 129-151.

Er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77-106). Hillsdale, M. J.: Lawrence Erlbaum.

Feeney, J. (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355-377). New York. Guilford.

Franz, C. E. & White, K. M. (1985). Individuation and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Exetending Erikson'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53, 224-256.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3, Serial No. 201)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Hommock, G. 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 (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6,* 577-583.

Johnson, D. W., & Mitchell, J. (1996). Effectiveness of conflic managers in an inner-city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 280-285Selman, R. L. (1981).

Kerne, K. A., & Steven,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 to social relation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23-342.

Kobak, R. H.,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Laursen, B., Hartup, W. W., & Kolas, A. L. (1996). Towers understanding peer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 76-102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66-104.

Mallinckrodt, B., Gantt, D. L., & Coble, H.M.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07-317.

Marrone, M.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Attachment and interation](이민희 역). 서울: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88년에 출판)

Mayer, B. (2000). *The Dynamics of conflict resolution: A practitioner's guid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Inc, Englandwood Cliffs.

Pollard, A. (1985). *The social World of the primary school.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Pruitt, D, G. (1983)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167-194.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Rose, A. J.,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 69-79.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y Press.

Shantz, C. U. (1987). Conflicts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2), 283-305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ole of undersranding in conduct.* Development Review. 1. 401-422.

Thomas, K, W. (1976). Conflict dna coflict management. In M. D. L.

Dunnette(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Torquati, J. C., & Vazsonyi, A. T. (1999). Attachment as and ornainational for affect, appraisals, and coping of late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5), 545-562.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and father. *Child Development, 67*(1), 183-201.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부록>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부모님과 친구사이에 느끼는 감정과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도 아니고 공부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지켜질 것이며**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설문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빠진 답이 많은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써 답해 주신 설문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떠오르는 답에 ○표 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 정선현
지도교수 : 이희영
연락처 : 010-4751-6306

학교 : _____초등학교 _____학년 _____반 _____번

1. 성별 : 남( ) 여( )
2. 여러분의 출생 순위 ( )남 ( )녀 중 ( )째
   예) 1남 1녀 중 2째
3. 현재 나와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해 주세요.

_____①아버지 _____②어머니 _____③새아버지 _____④새어머니
_____⑤할머니 _____⑥할아버지 _____⑦형/오빠 _____⑧누나/언니
_____⑨동생 _____ ⑩기타(그 외 다른 분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써주세요)_____

하나	◘ 다음은 여러분의 <u>어머니</u>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문항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2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1	2	3	4
4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1	2	3	4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6	어머니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 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로 기분이 상했을 때 이를 알아차린다.	1	2	3	4
8	어머니와 함께 나의 문제를 의논할 때 부끄럽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9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1	2	3	4
10	나는 어머니 때문에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속상해 한다.	1	2	3	4
12	무언가에 대해 어머니랑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는 내말을 잘 들어주신다.	1	2	3	4
13	우리 어머니는 내 결정을 신뢰한다.(믿는다.)	1	2	3	4
14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로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15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내 자신(장점, 단점 등)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16	나는 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17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1	2	3	4
18	나는 어머니한테서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19	우리 어머니는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1	2	3	4
20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신다.	1	2	3	4
21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22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는다.	1	2	3	4
23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를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나는 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25	만약 어머니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실 것이다.	1	2	3	4

둘	◎ 다음은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한 문항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2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린다.	1	2	3	4
3	의논할 때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1	2	3	4
4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1	2	3	4
5	내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	1	2	3	4
7	내 친구들은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1	2	3	4
8	내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	2	3	4
9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친해져야 할 필요를 느낀다.	1	2	3	4
10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11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2	친구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1	2	3	4
13	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4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1	2	3	4
15	친구들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16	친구들은 나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도와준다.	1	2	3	4
17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염려해 준다.	1	2	3	4
18	내 친구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19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20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1	2	3	4
21	내 친구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1	2	3	4
2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23	나의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1	2	3	4
24	나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에게	1	2	3	4
25	친구들은 만약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 본다.	1	2	3	4

셋	◘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다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표를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려고 한다	1	2	3	4
2	나는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1	2	3	4
3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친구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	1	2	3	4
4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친구에게 맞춘다.	1	2	3	4
5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으려 한다.	1	2	3	4
6	나는 서로 다툴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1	2	3	4
7	나는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1	2	3	4
8	만약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나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한다.	1	2	3	4
9	나는 친구와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1	2	3	4
10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와 같이 의논한다.	1	2	3	4
11	나는 친구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간다.	1	2	3	4
12	친구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나는 친구가 하고 싶은 쪽을 내 생각을 바꾼다.	1	2	3	4
13	나는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룬다.	1	2	3	4
14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모두 말한다.	1	2	3	4
15	나는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드리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1	2	3	4
16	처음에는 친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구가 원하는 쪽으로 내 생각을 조절한다.	1	2	3	4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답이 없는지 살펴봅시다.